전법 일기

MZ세대 스님들의 대학생 템플스테이

얼마 전 최초로 영남지역 대학생 연합 템플스테이와 수계법회가 통도사에서 봉행됐다. 그동안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대학생들의 동아리 연합 템플스테이나 연수를 염원하고 희망했던지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나도 한때는 호기심과 열정,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용기로 청춘을 살았다. 배고픈 불교학도들에게 공양을 손수 챙겨주며 따뜻하게 보살펴주시는 스님들의 마음에 감화되어 그 시절에 금강경 육조단경을 접하고, 결국에는 출가도 하게 되었다. 이제 어른이 되어버린 내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통도사로 들어가니 20대로 돌아간 마냥 들뜨기도 했다.

74명의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도사 1박 2일. 모든 일에 정적이면서도 여법과 위의를 중시하는 스님들과 발랄하고 숨길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는 동적인 젊은이들의 흥미진진한 절집 만남! 입재식에 이어진 저녁공양 시간엔 밥과 두부를 한 대접을 가져다 먹으며 대화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온 도량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추적추적 비 내리는 전각의 처마 밑에서 학인스님들이 울리는 사물 소리, 그리고 통도사의 예불은 더욱 장엄했다.

어느새 스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템플스테이 사무실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부드럽게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하다 보니 다들 같은 고민이 생긴 것이다. 레크리에이션 역할이 무엇보다 큰 이때, 우리는 포교국장 신경 스님을 필두로 6개조를 구성해 각 조마다 스님이 한 명씩 들어가 소통하며 간식시간에 학생들끼리 화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로 했다. 마지막엔 친목을 도모하며 상품을 건 스님들의 재밌는 OX퀴즈까지! 그렇게 스님들은 비좁은 템플스테이 사무실 탁자에서 머리를 맞대고 눈 깜짝할 사이 5개씩 문제를 만들었다.

엉뚱한 OX퀴즈 하나에 전법을 향한 열정과 진심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MZ세대 6명의 스님들과 한바탕 웃어가며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 수행자들의 진심어린 마음에서 비로소 대학생 전법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통도사 금강계단의 계단(戒壇)은 108개일까?' '통도사 처마 밑 단지에는 소금이 들었을까? 설탕이 들었을까?' '오늘 함께한 스님 중에서 누가 제일 어릴까?'

스님들끼리 먼저 편안한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었을까. '스님들과의 차담'에서 대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OX퀴즈를 할 여유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1박 2일 중 차담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답했다.

좋아하는 친구와 헤어진 뒤 슬픈 감정을 극복하고자 불교동아리를 들어온 친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싶어서 급하게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든 친구, 친구 따라 절에 온 친구, 타종교에 있다가 명상이 하고 싶어서 절에 온 친구 등 다양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템플스테이 참여는 그야말로 전법의 희망이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다가가는 '내 절친' 같은 불교야말로 대학생의 전법의 열쇠가 아닐까 싶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찰나 속에서 영원을 본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다. 2024년 새해는 2023년의 끝에서 솟아 오른 찰나, 오늘은 어제의 끄트머리에서 터져 나온 찰나다.

찰나란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어느 직장을 다닐 것인지,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찰나다. 이 찰나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 병든 연인을 위해 자신의 귀한 장기를 떼어주고, 극한 상황에서는 자식 대신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찰나란 무서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찰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날 수도, 거품처럼 사그라질 수도 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하여 행동을 함부로 하면 세세토록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한 순간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면 어지러웠던 과거의 삶은 사라지고 희망찬 삶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순간에 허무한 생이 뜻있는 생으로 바뀌고,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처럼 정신이 깨어나는 순간보다 값진 삶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땅 밑 정신의 새싹이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이 그리워 땅 위로 솟아오른 존재다. 시간과 공간을 헤치고 터져 나와 육체란 옷을 입고 도상을 걸어가는 미완의 한 점이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몸속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자신의 오욕(五慾)을 지배할 줄 아는 것이 정신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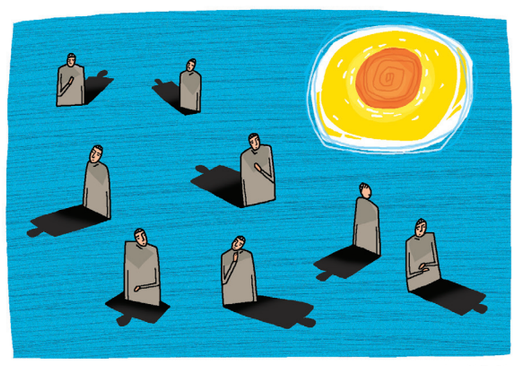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 마음속 광명한 정신의 빛 한줄기가 터져 나왔다. 육체는 조금 줄여도 무방하고, 빛나는 정신은 늘려 나가야 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은 깊어진다. 생각해서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생각의 끄트머리를 자꾸 터트려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끝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나는 영원한 정신의 한 점이다. 영원한 불성(佛性)의 한 끄트머리다. 영원 전부터 이어 내려온 한 끝이다. 정신을 계속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 자각을 하게 된다. 바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다. 찰나 속에서 영원을 보는 것이다. 영생이란 오랜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시간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순간, 시간을 초월하는 찰나에 있다.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언제 어디서나 영생이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때 영생은 그 실천 속에 있다. 진리의 세계는 실천의 세계다.

언제까지 뗏목이란 문자반야(文字般若)에 매달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만 들치고 있을 것인가. 진리란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법어(法語)가 되어 순간순간 깨어 행동하는 삶이 영생이다.

2024년 새해는 영원한 생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외쳤던 찰나이다.

불사조(不死鳥)가 금빛 날개를 활짝 펼쳐 영원의 한복판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새해 아침, 유난히 푸르다. 우리 머리를 곧게 세우고 땅을 딛고 우뚝 서서 제 소리를 터뜨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가〉

기자칼럼

굿즈 전성시대와 불교

박물관 굿즈를 좋아하는 후배 기자는 종종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온라인 상품관을 둘러본다. 후배 기자를 사로잡은 상품이 있어서인데, 2023년 뮷즈 공모 당선작인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를 활용한 것으로 잔에 차가운 술이 담기면 선비들의 얼굴이 붉게 물든다. 상품에 위트가 있다 보니 연일 매진 행렬이라고 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내놓는 굿즈의 지난해 매출액이 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비롯한 여러 굿즈들이 꾸준히 히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온라인 상품관을 둘러보면, 불교 굿즈는 상당하다. 반가사유상의 경우 미니어처뿐만 아니라 방향제, 무드등, 인형 등 제품군이 다양하게 확대됐다. 또한, 보살좌상·금동판 부처·석굴암 본존불상·미륵사지석탑 미니어처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불교계도 송광사 자공 스님이 만든 '빨간목탁' '연꽃세상'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등이 있지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수준으로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기획팀장은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유물재현품과 굿즈의 경계를 고객 수요와 트렌드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또한 "불교 신자들을 위한 상품, 일반 대중을 위한 상품 등 고객층을 분리해 각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굿즈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불교계에 조언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사람이 40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의 질이 높아진 것도 한몫 했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박물관 굿즈를 구입하며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를 보면 잘 만든 불교 굿즈는 좋은 포교 방편이다. 굿즈 전성시대, 불교문화유산 활용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